

노관규 순천시장, 독일서 정원박람회 사후 활용 방안 모색

세계적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서 자전거 타며 환경 스케치 “숲과 꽃과 물에 풍덩 빠진 도시, 사람 중심의 도시 만들 것”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을 한 달여 앞두고 노관규 순천시장이 세계적인 환경도시 '독일 프라이부르크'를 찾아 순천정원박람회 사후 활용 방안 등을 모색했다.

21일 순천시에 따르면 노 시장과 정원박람회 조직위, 공무원 등 9명은 18일부터 24일까지 5박 7일간 일정으로 독일 슈투트가르트와 프라이부르크, 만하임, 뒤셀도르프, 본을 차례로 방문해 선진 정원 도시의 사례를 견학하고 있다.

이들은 20일 세계적인 환경 도시 '프라이부르크'에서 친환경 도시정책을 살펴보고 독일 생태도시를 순천시에 접목하는 방법을 고민했다.

프라이부르크시는 1970년대 원전 반대 시민 운동을 시작으로 50년간 도시관리 전반에 걸쳐 그린시티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자동차보다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

하는 생태교통정책이 자리 잡아 현재는 친환경 교통 분담률이 70%에 이르고 있다. 도시 전체의 70%를 녹지로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유럽의 허파라고 불린다.

시민 주도로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드는 등 빛나는 시민의식이 돋보이는 프라이부르크는 독일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 1위로 꼽힌다.

2017년 22만 명이었던 작은 중소도시의 인구가 5년 새 6만 명이 늘었고 현재도 이사를 오고 싶어 하는 독일 국민, 환경 수도를 배우러 오려는 세계 각지의 학생들이 줄을 잇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노 시장은 프라이부르크 미래연구소장 '아스트리드 마이어(Astrid Mayer)'와 만나 프라이부르크의 친환경 정책과 순천시의 생태정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이어 프라이부르크 미래연구소장은 "지구가 기후변화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프라이부르크는 2050년보다 훨씬 앞선 2038년에 탄소제로 도시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녹지를 확충하고, 에너지를 자립시키고, 사람이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었을 뿐인데 인구가 늘고, 독일인이 가장 사랑하는 도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프라이부르크 사례를 보고 순천시가 생태도시로 변신한 것이 무척 감명 깊었고 기회가 되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도 꼭 보고 싶다"고 말했다.

노관규 시장은 "프라이부르크는 도시 규모가 순천시와 비슷하고, 지향하는 가치도 같다. 15년 전 생태 수도를 선언할 때 본보기가 프라이부르크였다"면서 "도시를 숲과 꽃과 물에 풍덩 빠뜨린 도시관리 정책과, 사람 중심의 생태교통정책도 순천형으로 잘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노 시장 일행은 프라이부르크에서 자전거를 타며 도시를 누비며 환경 수도 교통정책을 직접 체험해 보기도 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걷고 싶은 도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길, 순천형 대중교통 도입 등 대차보 생태교통정책으로 빠르게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노 시장은 프라이부르크에 이어 만하임을



세계적인 환경도시 독일 프라이부르크를 방문한 노관규 순천시장. (사진=순천시 제공)

방문해 독일 연방 정원박람회(2023BUGA) 관 계자를 면담하고 조성 현장을 찾는다. 뒤셀도르프, 본에서는 각각 수변 보행자 전

용도로 및 저류지 공원인 라이니우에 파크를 방문한다. 순천=김승호기자

광양시, 제22회 광양매화축제 준비로 '들썩'

'광양은 봄, 다시 만나는 매화' 슬로건...안전 최우선 가치



광양시가 4년 만에 공식 개최될 제22회 광양매화축제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추진상황 점검에 나섰다.

시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임체기 관광문화환경국장 주재로 관계부서장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축제 세부추진계획 및 부서별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4년 동안 축제를 기다려 온 관광객들이 대거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전남대표축제 위상에 걸맞은 축제장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광양시는 3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광양은 봄, 다시 만나는 매화'라는 축제 슬로건 아래 차별화된 콘텐츠와 업그레이드된 축제로 시민과 관광객을 맞는다.

매화축제 아이디어 공모에서 선정된 프로그램을 축제에 도입하고 기본계획 적정성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등 질적 수준을 강화했다.

4년 만의 재회를 컨셉으로 단순 관람형에서 수익 창출형으로 축제를 전환하고 소규모, 오픈형, 청정 등 엔데믹시대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레저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유료존 도입, 주차요금 징수, 스폰서십 및 선진강 리버마켓 유치 등 다각적

인 변화를 시도하고 체험료 및 주차요금 일부 지역사업장 이용권으로 지급한다.

축제는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2개 광역단체장과 광양, 구례, 곡성, 하동 등 섬진강권 4개 기초단체장이 참여해 동·서 화합을 다지고 섬진강 관광시대 원년을 선포하는 뜻깊은 자리로 문을 열 계획이다.

황금매화·매실 GET, 매들이와 함께하는 AR 인생샷, 매화꽃길 BGM 저장소 등 선진국형 스폰서십을 활용하고 매실 본고장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프로그램들도 대거 펼친다.

또한, 흥쌍리 명인의 쿠킹클래스 '홍 명인의 매實심', 관광객과 함께하는 광양 맛보기 등 광양의 정체성을 살린 오감만족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전 지구적 화두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ESG 프로그램과 셔틀버스 운행, 관광약자를 위한 휠체어 및 유모차 대여 등 모두를 위한 관광수용태세도 강화된다.

매화마을 일원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고 광양시티투어 코스에 반영하는 등 체류형 관광상품 발굴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전략도 마련한다.

또한, KBS 전국노래자랑, 남도속박할인 빅 이벤트, 1박 2일 캠핑 운영 등 다양한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해 축제의 파급효과를 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광양=김현근기자

여수산단 폐기물 관리 집중 점검...선제적 대응

배출자·처리업체 현장점검, 사고발생 사업장 유관기관 합동점검 병행

여수시가 이달부터 여수 산단 화학사고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폐기물 관리 실태' 집중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산단 내 폐기물 배출사업장과 처리업체로 환경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점검 횟수를 늘리는 등 집중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폐기물 처리기준 ▲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사고시설 행정처분 개선 내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사고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화학, 소방, 고압가스, 산업안전, 환경분야와 관련한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전라남도 등 5개 기관과 합동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상시 점검을 통해 화학사고 근절과 환경오염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고흥군, 음악과 함께하는 '청렴·친절 아침방송' 시작

고흥군은 공직자 간 상호 소통과 친절을 바탕으로 하는 청렴 윤리의를 함양하기 위해 22일부터 '음악과 함께 하는 청렴·친절 아침방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음악과 함께 하는 청렴·친절 아침방송'은 매주 수요일 업무시작 전 청내방송을 통해 청렴 명언 및 일화, 청렴 실천 사례 등의 다양한 주제로 전 공직자에게 청렴한 하루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짧은 시간이지만 청렴한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고 스스로 청렴한 실천 의지를 다지도록 도와줄 아침방송은 청렴과 친절이 고흥군의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해 줄 수 있는 시책 중 하나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공직자의 청렴생활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기동휘재본부

내 삶이 행복한 광산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